

5월의 사양관리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



방역 및 위생관리

기 생충에 감염된 소는 섭취한 영양소의 많은 부분을 기생충이 사용하므로 영양장애로 인한 성장 및 우유 생산, 면역저하 등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봄철과 가을철에 연 2회 내외부 기생충 구제를 위한 정기적인 구충을 해주어야 한다.

본격적인 봄이 되어 기온이 상승하고 겨울철에 비해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번식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세심한 발정관찰을 통해 발정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기에 수정하여 수태율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보다 정확한 발정발견을 위해서는 발정관찰 보조기(카마크, 크레용, 발정탐지기 등)를 사용하는 것도 권장한다. 젖소의 발굽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과도한 단백질 섭취에 의한 영양불균형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발굽병 예방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영양균형이 되도록 사양관리를 해 주어야하며 연 1~2회 정기적으로 발굽을

삭제해 주고 발굽병 예방을 위한 소독조를 설치해 준다.

젖소가 분만 후 24시간내에 분비하는 우유를 초유(初乳, colostrum)라고 하며, 초유에는 비타민 A, D, E 및 단백질 등 영양물질이 일반 우유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송아지 출생 후 빨리 급여하는 것이 좋다.

분만초기에는 송아지 설사가 없다가 송아지 방에 몇 마리 거치면서 많은 설사가 일어난다. 이러한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송아지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 및 건조를 철저히 한 후 새로운 송아지를 입식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구제역 발병에 따라 가축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기적인 축사소독과 축사 출입구에 방역시설을 계속적으로 가동하여 사료운반차나 집유차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일반 사양관리

올 들어 2번째 구제역이 지난 4월 9일 강화에서 발생함으로써 방역당국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구제역은 1차 발병한 구제역 바이러스와는 다른 종으로 밝혀져 1차 발병지역의 차단방역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었기는 하나 구제역 집중 방역기간에 2차 발생이 되었다는 점이 우리의 방역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시기적으로 동계 사료작물인 호맥, 이탈리아라이그라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이다. 겨울동안 신선한 조사료를 공급하지 못했던 축우에게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호맥 청예를 갑자기 많이 주거나 방목을 오래하면 고창증 및 소화기 장애로 인해 설사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청예사료를 급여할 때는 7~10일의 여유를 두고 급여량을 서서히 늘려주어야 한다.

젖소에게 수분이 많은 청예 급여는 우유 생산량을 증가시키나 유지율이 떨어지고 에너지 섭취가 부족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건물섭취량 증대를 위하여 청초를 그대로 급여하기 보다는 햇볕에 1~2일 말려 수분을 줄여서 충분히 급여한다.

초지 및 사료작물

지 난해 심어 놓은 호맥 및 연맥을 이용하려는 농가에서는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사일리지를 담글 것인지 건초를 만들어 이용할 것인지를 정한다. 사일리지로 이용할 경우에는 비와의 작부에 문제가 없거나 도복되지 않으면 가소화건물 수량 및 에너지 생산성이 가장 높은 개화기 이후나 유숙기에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청예나 건초 등으로 이용할 때는 너무 늦으면 기호성이 낮아지므로 출수기에 수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작으로 옥수수를 파종하려면 옥수수 파종이 늦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파종을 완료하여 수확량을 높인다. 옥수수 및 수단그라스는 파종후 3~5일 이내에 잡초우점을 방제하기 위하여 ha당 라소 3,000ml + 씨마진 1,000ml를 물 1,200l 에 풀어서 전면 살포한다. 옥수수 추비시에는 옥수수 잎에 이슬이나 물기가 없을 때 포기에서 10~15cm 떨어진 곳에 포기마다 주되 잎이나 생장점에 비료가 닿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멸강나방 방제를 위하여 예찰을 철저히 하여 방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양관리

물 은 혈액량을 유지하고, 조직에 필요한 것을 영양소를 운반하고 공급하며, 착유우에 의해 분비되는 우유의 약 87%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물 섭취량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물 공급량이 충분한지를 조사하고 물 저장탱크, 수도관의 부식여부 검사 및 수리를 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 준다. 젖소에게 수질이 나쁘거나 불충분한 물 급여는 우유생산량이나 성장을 제한할 수 있고,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깨끗한 물의 적절한 공급은 정상적인 반추위 기능과 사료섭취량 증가, 소화와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한다.

만약 산유량이나 번식성적이 저하되고 우군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원인을 모른다면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계절적으로 분만과 발정이 많으므로 분만 예정우와 발정우의 관찰을 오전과 오후 착유 전에 20~30분 정도 실시하여 기록함으로써 분만을 및 번식을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 그리고 소금 및 광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양관리에 유의한다.

개체별 산유량을 점검하고 사료 값 등을 고려하여 저능력과 번식장애 및 체세포수가 높은 개체는 신속히 도태시키도록 한다. ☺